

第52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5月18日(土) 午前10時 開式

第52回(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 議事係長 鄭恩秀)

(10時00分 開式)

○議事係長 鄭恩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柳成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장섭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활짝핀 진달래꽃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의원님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번 5월 7일을 “성북구민의날”로 정하고 5월 3일부터 8일까지 '96성북구민 한마음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말그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구민과 함께”하는 축제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성북구민 한마음 축제”기간동안 구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느끼며, 5월의 풍성한 한마음 축제에 커다란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도시살이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지만, 이날만큼은 어깨를 걸고 오른 쪽 왼쪽으로 박자를 맞춘 옆사람이 “성북구민”이라는 동질감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심장섭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 반년을 맞아, 항상 연구하고 발전하는, 성북구의회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임무수행의 뒷받침과, 현장 경험으로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과, 자치행정의 적응력을 키우고자,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10여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기간중 여러가지를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도 많은 생각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외국의 현장 경험과 전문으로, 궁극적인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생각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것을 화두로 삼아 많은 이야기를 전개해 왔습니다.

타산지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유럽의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적 배경 및 원칙을, 지금 이 자리로, 성북구의회로 살펴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북구의회와 성북구청이 두개의 다른 책임 영역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공통된 책임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구민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과 의견의 수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추어, 모범적인 지방자치제를 전망하고, 외국의 성공한 지방자치제를 주목하여, 항상 “주민의 뜻과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되고, 지방의 세계화를 하루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다시한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96성북구민 한마음 축제”기간동안 애쓰신 진영호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개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鄭恩秀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時10分 閉式)